

세상을 향해
나래차기!

Recycle





— 세상을 향해 나래차기

장르 액션 / 스포츠
글/그림 MZ / 아이디어콘서트
회차 32화

**“다시 시작하기 좋은 순간은 지금 말고는 없다 !
어려운 역경을 딛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인생의 큰 스승이자 소중한 할아버지를 잃고,
가장 촉망받는 태권도 유망주이자 금메달리스트였던 윤도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태권도마저 포기해버리고 만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순간이다.

윤도현은 정명체고에 태권도 선생님이로 부임한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건 구제불능의 문제아들.

과연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몰락한 천재 태권도 선수, 참 스승이 되다

국가에 위탁받아 보호 감호가 끝난 학생들만 다니는 문제아 갱성 전문 고등학교 "정명체고"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의 지론이 젊은 혈기를 누르는 데는
무엇보다 과격한 운동이 최고라는 설립 이념 아래 정명체고는
기본적으로 격투기를 전문으로 가르쳐 갱생을 유도하는 학교로 운영되게 되었다.
국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애들 중
폭력전과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만 따로 모아 만든 최악의 반, 3학년 D반.

이 문제의 반을 맡겠다고 직접 나선 이는 무려 이사장의 손녀딸이자
올해 초임 교사로 이곳 정명체고에 발령이 난 하서린.
그리고 이 문제의 반, D반의 특별활동은 강제적으로 이사장의 직권에 의해
태권도부로 전원 배정된다.



폭력사건을 딛고, 차준호의 성장



정명체고 부임과 동시에 러브라인 시작?



태권도의 폼세와 정신을 온전히, 액션과 드라마를 모두!

- ✓ 2020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사업 선정작품



- ✓ 실제 태권도 선수들의 폼세와 동작들을 작품에 녹여 생생한 액션
- ✓ 학원 폭력물이 아닌, 태권도의 스포츠 정신을 담아냄
- ✓ 영화 '국가대표', '우생순'과 같이 감동을 함께 구성하여 전개



